

제5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5. 4. 24. (금) 15:00 ~ 18:30
2. 장 소 : 을곡관 제 1 회의실
3. 참 석 : 이순일 의 장, 이재호 부의장, 김상배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임문채 평의원, 신의섭 평의원, 박진훈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불참 : 한호 평의원, 오동석 평의원, 강희진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4. 의안

- 심의 사항
 - 학칙 개정 (안)
- 자문 사항
 - 2014학년도 교비회계 및 병원회계 결산 (안)
- 보고 사항
 - 아주발전전략위원회 및 아주발전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예정

5. 주요 회의결과

가.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대학평의위원회 규칙 제5조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대행자 지정)에 따라 이순일 평의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출절차를 진행함
-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순일 의장과 이재호 부의장을 선출함

나. 심의사항 - 학칙개정 (안)

- 심의에 상정된 학칙개정(안) 중 44조를 제외한 학칙 개정(안)은 심의함. 제 44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의를 보류함
 -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성격 및 교육목표가 상이하기에 지금까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대학원 간의 차이를 무시한 방향으로의

<간서명 란>

의 장



학칙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번에 제안된 특수대학원생의 일반대학원 과목 수강허용 건은 학칙 개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특정 특수대학원의 일부 과정 학생들을 고려한 것이라면, 학칙 개정 없이 해당 특수대학원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수대학원생들이 일반대학원 수업의 내용과 난이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생들이 일반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생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강의가 진행되는 데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특수대학원은 자율운영부서이며 강의도 통상적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대학원과 구분하지 않으면 운영과 학사 관리에 있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안 취지는 일부 이해하나 학칙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후속조치가 필요함.
- ‘교내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의 문구는 일반대학원과 해당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다른 특수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내 일반대학원 및 타 특수대학원’ 으로 변경되어야 함.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기초교육대학 및 융복합교육센터 명칭 변경, 환경안전센터 신설사항 반영
- 제8조(대학원) : 공학대학원 전공 및 학과 폐지, 정보통신대학원 전공명 변경
-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기초교육대학 명칭 변경
- 제21조(학생정원) : 2015-2학기 일반·특수 대학원 및 2016학년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표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기초교육대학 명칭 변경
- 제23조의 2(계약학과) : 정보통신대학원 전공명 변경 및 미반영전공명 추가
-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공학대학원 전공 및 학과 폐지, 정보통신대학원 전공명 변경
-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기초교육대학 명칭 변경, 기초의과학 전공 폐지

자세한 사항은 3차 교무회의 회의록 참조

<간서명 란>

의 장



다. 자문사항

○ 201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1) 보고사항

- 총무처장이 201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자문의견서 참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 개정되어 2014년도부터는 교비 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재원에 따라 집행 관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특히 등록금수입은 건축기금 적립 이외에는 모두 교육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동 특례규칙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이에 맞추어 장기적인 재정 계획 및 예·결산 처리 원칙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비회계 수입의 대략 50%가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이지만 학부과정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학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금, 기부금, 책임운영부서 관련 수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법인은 당기에도 법정부담금 중 일부만 전입하였음. 전입되지 않은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이전과 같이 교비로 충당한 결과, 본교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음. 향후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100% 전입하며, 나아가 지금까지 법인이 전입하지 않아 교비로 충당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연차적으로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 법인과 대학본부가 긴밀히 협상해 줄 것을 촉구함.
- 책임운영부서 제도를 시행한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 부서들의 오버헤드 (O/H) 납부, 운영경비 지출, 기금적립 내역 추이를 검토하고 새롭게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최적화된 운영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이후의 국고지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압박’ 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결산자문 내용이 차년도 예산안 작성과 등록금심의에 반영되어 좀 더 합리적인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기를 기대함.

<간서명 란>

의 장



○ 201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1) 보고사항

- 행정부원장이 2015학년도 부속 병원 회계 결산(안)을 설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함.
- 법인의 수익사업체 운영을 통해 의료원의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병원과 학교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재정적 기여가 가능하기를 기대함.
- 병실 증설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 확충이 뒤따라야 하므로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면 심각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병상·병실 증가와 관련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투자할 계획임. 일단, 내년 2월 외상센터가 완공되면 100 병상이 늘어날 예정임.
- 경기가 나빠지면 직접적 치료보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작년에는 건강검진 수입실적이 부진하였음. 고가의 검사들이 포함된 작년까지의 건강검진 방식을 바꾸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전략으로 변경한 결과, 올해 3월부터는 건강검진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 석해균 선장의 수술 및 입원과 관련된 2억 원 가량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협의를 현재 정부와 진행 중임.

2) 자문사항 (※자문의견서 참조)

- 법인 수익사업체들과의 거래 및 계약에 있어, 납품과 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료원의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 법인 수익사업체들이 향후 거래 및 사업 대상 다각화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장례식장 운영 수익과 함께 본교 재정 개선에 사용해 주기 바람. 장례식장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의료원과 대학에 투입한다는 원칙의 확인과 더불어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수익의 적절한 배분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적절한 수준과 속도로 병상을 확충하고, 건강검진 수입을 늘리며, 의료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간서명 란>

의 장



○ 기타 사항

- 아주발전전략위원회 및 아주발전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함.

※ 별첨: 자문의견서

<간서명 란>

의 장



2015년 4월 24일

의 장	이순일	(서명)
부의장	이재호	(서명)
평의원	김상배	(서명)
평의원	한 호	(서명)
평의원	오동석	(서명)
평의원	이동렬	(서명)
평의원	임문채	(서명)
평의원	신의섭	(서명)
평의원	박진훈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간 사	김승권	(서명)